

서울의 '살풍경' 마음의 풍경

국제갤러리 노충현 개인전

자신만의 독특한 풍경화로 주목 받는 화가 노충현(43)이 개인전을 열고 있다. 요즘 보기가 드문 구상 회화를 꾸준히 작업하며, 회화의 맛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다.

국제갤러리에서 7월 14일까지 마련된 전시의 이름은 '살풍경'. 사진적으로 보면 쓸쓸하고, 스산하면서도 고요한 정경이란 뜻이다. 한강시민공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책로, 수영장, 편의점 등을 소재로 한 25점의 작품은 겨울 눈에 덮인 풍경, 장마철 풍경, 밤 풍경으로 크게 나뉜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풍경, 일상적 소재를 다뤘지만 작품들은 하나같이 눈길을 잡는다. 그의 그림은 쓸쓸하고 스산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명상적이다. 관람객으로 하여금 사유에 빠져들게 한다.

무엇 때문일까. 화면 위의 색채가 자극적인 요즘 회화들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다. 붉은색, 푸른색 등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탁색이 된 듯 채도가 떨어져 있다. 모



산책

호하고 흐릿한 듯한 풍경은 몽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관객은 늘 접하는 풍경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관조하게 된다.

특히 옛문인 산수화의 여백의미 같은 빈 공간도 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작가의 치열한 고민, 욕심을 억제해 누른 절제에서 만들어진 여백이다. 그의 작품이 문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문인산수화 분위기를 좋아한다"며 "이것저것

그려넣을 수도 있지만 늘 많이 비우려고 애쓴다"고 말한다.

특별하지 않은 풍경이 특별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은 공간이나 경관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늘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는다. 그렇다고 사진의 실경을 그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풍경 사진 중 그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것만이 소재가 된다.

(02) 735-8449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